

섬주민 건강 위해 새벽배에 몸을 싣고

옥지도 주민건강검사 나선 건협 경남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가 도민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95년도 주민 순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진에서는 특히, 건강검진이나 의료혜택이 많지 않은 섬 주민을 위해 이동검진차량까지 동원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섬주민들의 커다란 호응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번 건강검진에 나선 검진팀을 쫓아서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옥지도 주민검사의 현장을 찾아가 봤다.

주민들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새로운 힘을 얻고 주민건강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는 검진팀의 말만큼이나 검사현장의 열기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이번
섬주민 건강검사에는
이동검진버스까지
동원되었다.
좀더 다양한
검사를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던 때문.

• 섬주민 건강검사 위해 이동검진 차량도 동원

새벽 찬 공기가 바닷바람과 어우러져 자꾸 목을 움츠리게 하는 이른 아침. 마산에서 한시간 반을 달려 건협 경남지부 검진팀이 도착한 통영시 외곽 선착장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아, 검은색 잉크를 앞질러 놓은듯한 바다와 멀리 떠나고 있는 성냥갑 배의 빛줄기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따뜻한 오뎅국물로 허기를 달래고 배를 기다리며 잠깐 머리를 벽에 붙이려니 어느새 일행을 신고 갈 차량 운송선이 커다란 입을 벌린 채 다가오고 있었다.

육지도.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의 그 어떤 섬보다 아름답고 인심도 좋다는 섬. 그 섬에서, '95년도 주민 순회 건강검사가 있는 날이 바로 이날이었다. 꽤 여러 해 이곳에서 건강검진이 실시되긴 했었지만, 이번엔 좀 다른 것이 있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검진팀만 섬에 들어가 검사를 했으나 이번에는 이동검진버스까지 동원한 것이다. 작년 이맘때, 좀더 다양한 검사를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던 때문이다.

• 검진기회 적은 섬주민을 검사해 주어 고맙다

배를 타고 다시 한시간 반, 물결따라 도착한 육지도 부둣가에는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잘 좀
 검사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사진 좌측부터 김수만
 옥지면장, 김정현 건협
 경남지부 사업과장,
 부면장)

낮익은 사람들이 이미 나와 기다리다가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과 함께 검진이 있을 면사무소로 향하는 길에, 며칠전 홍보반이 섬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위한 홍보를 한 후라 그런지 곳곳에 붙어 있는 안내 벽보와 삼삼오오 짝을 지어 검진장으로 향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예상대로 검진장소에는 적지 않은 주민들이 검진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대대로 섬에서 살아왔다는 김울자씨(54세)는, “오만군데 아파도 검사 한번 받으려면 육지까지 나가야 하는데 육지 선생님들이 이곳까지 와주시니 정말 고맙다”는 말과 함께 검진팀의 손을 따뜻이 잡아 주었다. 비록 거친 손이었지만 거기에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자발적 건강관리 위한 보건교육 절실

또 건강검사를 한다기에 구경삼아 나왔다는 최준식씨는, 원래 건강한데 무슨 검사냐며 자신의 건강을 자랑했지만 지부 원장의 성인병 예방과 자기 건강관리법에 대한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 난 후에는 검사를 받기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좀더 많은 사람이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



건협 경남지부는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의
사람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또 다른 섬의
주민검사를 위해
나섰다.

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한참 검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곳을 찾은 김수만 욱지
면장은 “급한 환자가 생기면 군 헬리콥터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곳까지 찾아와 주민검진을 해주는 건협 경남
지부에 감사한다.”면서,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잘 좀 검사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민 검진에 최선을

지난 2월 22일부터 이틀간 있었던 욱지도 주민검사에서는 모두
80여명의 주민이 검사를 받았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건협
경남지부 검진팀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사람 한사람의 건강상태
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더불어서 건강생활을 위한 개인건강
교육도 실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검사를 받고 돌아가며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주민들의 모습 속에서 또다른 보람과 사명을 느꼈다.

그리고 건협 경남지부 검진팀은, 이 아름다운 섬에서조차 도시
로 향하는 집들이 늘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기왕이면 밝
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의 사람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일해야 한
다는 다짐을 하면서 내일 찾아가야 할 또 다른 섬 주민을 위해
오늘의 피로는 푸른 물결 속으로 훌쩍 던져버렸다. ㉞